

‘하나님의 부르심,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를 향한 감동의 시간

■ 광주동명교회 주최 ‘제20회 동명세계선교대회’ 6월 13일(금)~15일(주일)까지 성황속 마무리

광주동명교회(담임목사 이상복)에서 주최한 ‘제20회 동명세계선교대회’가 2025년 6월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 이[웃]주민’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과 청년, 이주민, 선교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과 찬양, 화해와 나눔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선교 축제의 장이 되었다.

■ Day 1: 청년 선교대회 -부르심에 응답하는 밤

13일(금), 청년 선교대회는 퍼켓 입장식으로 합창을 문 열었다. 찬양사역팀 ‘달빛마을’이 함께한 찬양집회에 이어, 최음 선교사가 ‘선교적 교회’와 ‘선교의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의 시간을 이끌었다. 참석한 청년들과 성도들은 파송선교

여 명의 이주민들이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다.

참가팀에는 중국, 필리핀, 몽골, 네팔,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0여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이 참여하였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당회장상, 특별상, 응원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되었으며, 모든 참가팀에는 상금과 기

■ Day 3: 선교주일-전 교인이 함께하는 선교적 헌신

15일(주일)에는 온 교회가 ‘선교주일’로 드러났다.

주일 낮 1부 예배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11년간 사역 중인 김동원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2·3부 예배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최동규 교수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메

세지를 전했다. 저녁집회에서는 전)WMC사무국장 이자 2025년 선교학교 강사인 이길재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 역사와 광주 지역 선교의 발자취를 아우르는 강연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1층 로비에서는 ‘국기 키링 만들기’ 등 선교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어린이와 가족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동명교회 중국 어예배팀, 자틀리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숨·힘이있는교회 등 다양한 다문화 선교 공동체가 함께했고, 광신대·호신대·전남대·조선대 유학생들과 광주CBS, 극동방송 등도 협

력하여 선교적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광주동명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15명의 파송선교사, 3명의 동역선교사, 75명의 협력선교사들과의 사역을 다시금 점검하며, 지역 이주민 선교 활성화, 국내외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청년들의 선교 헌신 등을 위한 10대 기도제목을 선포했다.

이번 선교대회를 총진행한 전양현 장로(세계선교위원장)는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대회 전과정에 사랑과 축복

을 주셔서 선교적교회 사명을 전성도들에게 비전으로 보여 주셨다”며 협력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앞으로도 광주동명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에 헌신하며, ‘열린 교회,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갈 계획이다.

[광주동명교회 세계선교위원회]

이주민 찬양경연대회 16개팀 100여 명 참여 열정적 무대 펼쳐 선교 주일 예배, 한국선교역사·광주선교 발자취 돌아 보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청년들 선교 헌신 등 10대 기도제목 선포”

사들의 영상편지와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합심 기도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 Day 2: 이주민 선교대회 -찬양과 나눔의 축제

14일(토)에는 제1회 이주민 찬양경연대회가 개최되어, 16개 팀, 약 100

명이 전달되었다.

이후 이어진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최음 선교사가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큰 은혜를 나누었고, 중국어 예배팀의 초심팀 자매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 가정을 이루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감동적인 강연을 전했다.

사지를 전했다.

저녁집회에서는 전)WMC사무국장 이자 2025년 선교학교 강사인 이길재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 역사와 광주 지역 선교의 발자취를 아우르는 강연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교육부서별로도 연령대에 맞춘 선교특강이 진행되었다.



사흘동안 펼쳐진 동명세계선교대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청년, 이주민, 선교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해와 나눔의 기쁨을 만끽했다.



선교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사흘동안 펼쳐진 ‘제20회 동명세계선교대회’ 어린이부터 청·장년, 노년까지 전세대가 아우러졌다.



창조의 사실성과 진화론에 물든 세상 학문들 2025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

- ◆ 일시 : 2025년 8월 16일(토) 09:30~16:30
- ◆ 주최 :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 ◆ 장소 : 광주보건대학교(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73)
- ◆ 등록 : 8월 8일까지 10,000, 현장 등록 20,000원(문의:062-525-6465)

※초중고생 및 인솔자는 무료(8월 8일까지 선착순 100명) ※등록계좌번호 : 광주은행 066-121-876023 홍기범

- ◆ 후원기관 : 광신대학교, 광주CBS, CTS광주방송, 광주극동방송
- ◆ 후원교회 : 광주겨자씨교회, 낙원교회, 침단겨자씨교회

세부일정

09:30~10:00 댄스 / 등록
10:00~10:50 댄스 / 개회 예배(설교 : 광신대 총장 김경문 목사)
11:00~12:00 댄스 / 초청 강연(강사: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창조과학과 성경의 신적 기원”
12:00~13:00 점심식사(도시락)
13:00~16:30 [1] 초중고생 대상 창조과학 강연 [2] 일반 세션 [3] 전문세션
[1] 초중고생 대상 창조과학 강연(다윗관 1층 배리타스 홀)
① 13:00~13:50 대폭발을 향해 가는 교과서: 빅뱅 우주론(안병태 박사/한국기독교연구원)
② 14:00~14:50 화석과 지층: 오랜시간? 그전 믿음이야(윤지영 교진추 이사/예수영남기독교학교 교사)
③ 15:00~15:50 생물 진화, 시험에 나오지만, 과학은 아니야(김오연 연구소장, 교진추)
※ 16:00~16:30 질의 응답
[2] 일반세션(다윗관 1층 제3세미나실)
① 13:00~13:50 이병수(경인여대 보건경영학과 교수)-창조과학 최신 이슈

② 14:00~14:50 류현보(서울대 치대 명예교수/교진추 학술 위원)진화론이 과학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들에 미친 영향
③ 15:00~15:50 백현주(다교연 대표) 학교 공교육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책
※ 16:00~16:30 질의 응답
[3] 전문 세션(다윗관 3층 스크라 홀)
[3-1]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① 13:00~13:30 이남규(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뇌가 영혼인가? 창조신학으로 본 인간과 영혼
② 13:30~14:00 김진수(합동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아담, 역사적 인물이 아닌가? 창세기 1-2장으로 본 아담의 역사성
③ 14:00~14:30 김준(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창세기 1 장에 나타난 하나님
※ 16:00~16:30 질의 응답
[3-2] 창조 vs 진화
① 14:30~15:00 김성현(건국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파스퇴르와 푸세의 논쟁으로부터 살펴본 1860년대 프랑스에서의 자연발생 논쟁과 그 영향
② 15:00~15:30 백영운(울지대 분자생물학교실 교수)항생제 내성균은 진화의 증거인가?
③ 15:30~16:00 이정민(한동대 생명과학부 교수) 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의 재창조 사역
※ 16:00~16:30 질의 응답